

# ‘북중 밀월’ 미중 무역전쟁에 활용되나

### 중국 대미협상 카드로 떠올라...트럼프 北 비핵화 영향 촉각

미중 무역전쟁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겹치며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우려에도 북한과 밀착을 가속해 향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난관에 봉착한 북미협상을 두고 중국이 북한을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11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장청강(張承綱) 주북한 주중대사 임시대행은 최근 평양에서 김명철 북한 외무성 조약국장과 이길호 영사국장을 만나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따른 관광 등 양국민 교류 확대와 국제무대 공

동대응,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임시대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을 바로 앞둔 지난달 14일에는 김창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과 만나 북중간 국제무대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린 대규모의 동북아문화산업 박람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등 중국내 경제 및 문화 협력에서도 북중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접촉에서 중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중국 또한 러시아를 함께 유엔 무대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북중 밀착으로 유엔 대북제재 공조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세짐에 따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합의 이행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9~20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뒤 비핵화 이행을 놓고 북한과 미국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 시점이 공고롭게도 미중 무역전쟁과 겹치면서 중국이 북한을 대미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중국 배후설’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이 11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벼랑 끝에 몰린 중국으로서 밀착된 북중관계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

간섭권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북미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경제 재건과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성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고조될 올해 9~10월 북한을 단방해 북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의 타개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전쟁이 연관이 없다고 중국은 부인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경우 교묘한 시점마다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듯한 정황이 있어 북한 비핵화와 무역전쟁이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류샤오보 부인 8년 만의 자유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사(가운데)가 1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 활짝 웃고 있다. 류사는 이날 헬싱키를 경유해 독일 베를린에 입성했다. 남편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 등을 당해왔던 류사는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연합뉴스

## 테슬라, 상하이에 연 50만대 생산공장 짓기로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연간 5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중국 상하이에 짓기로 했다고 상하이 시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가 외국에 짓는 공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해외로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했을 때를 대비한 계획으로 평가된다고 미 언론은 풀이했다.

테슬라 공장은 자유무역지대인 링강 개발특구에 들어선다.

상하이 시 정부는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연구 개발, 판매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테슬라가 지난달 주주들에게 상하이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팩을 생산하기 위해 당국 관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장 건설은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작된다.

머스크는 2년 전부터 테슬라 캘리포니아 공장 수준의 해외 생산기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와 상하이 시 정부는 약 1년 간 협상을 벌인 끝에 양해각서 서명했다. /연합뉴스

### 美, 중국에 1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관세 부과는 2개월간 공람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미국 아메리칸 항공

### ‘플라스틱 빨대’ 퇴출 동참

미국의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달부터 주요 승객들에게 개방하는 공항 라운지에서 옥수수를 원료로 한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와 나무로 만들어진 커피스틱을 제공하겠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숟가락, 나이프, 포크도 점진적으로 친환경 재질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 위협을 초래하고 환경과 생물자원을 파괴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대신 생분해성 물질로 만든 빨대나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도록 디자인된 음료 뚜껑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폭탄 테러 12명 사망...총선 유세 도중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의 사건 현장에서 10일(현지시간) 자원봉사자들이 부상당한 소녀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이 테러로 경찰 등 1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고령사회 일본, 폭우 사망자 상당수가 노인

### ‘재해 약자’ 대책 강화 지적

일본 서부지역에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재해 약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NHK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도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컸던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초 마을에선 46명이 사망했다. 오마우리신문은 이 마을 사망자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35명 중 70세 이상이 27명이나 돼 고령자의 희생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마비초에 거주하는 70세 여성은 폭우에 불안하기는 했지만, 주변 주택에 불빛이 보여 안심했지만 “지난 7일 새벽 일어났을 때는 피난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여성은 같은 마을 주민에게 보트로 구조됐다.

구라시키시는 당시 ‘피난준비·고령자 등 피난 개시’령을 발령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방재 무선으로 피난 지시를 알렸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72세 남성은 “빛소리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며 “방재 무선 내용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우리는 경험상 피해가 이렇게 클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례도 있을 것이라며 “고령자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정보를 얻어도 신체적 이유로 바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이 신문은 재해 시 자력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재해 약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준 도쿄대 교수는 “폭우 시에는 TV와 라디오로 정보를 자세히 듣고 빨리 피난하는 게 원칙”이라며 “평소 가족, 친구 등과 재해 대응에 관해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자는 대피하더라도 피난시설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의 한 시설에선 지난 8일 밤 80대 여성이 병원에 이송돼 숨졌다. 이번 폭우로 15개 지역에서 1만여명이 피난시설에 머무는 가운데 피해 지역에선 벌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과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폭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농림수산 피해액은 72억엔(약 723억 원)으로 늘어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비비 20억엔(약 200억 원)을 피해자 생활지원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 상가건물 매매 [ 신축 상가주택 ]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